

개회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임형재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가을, 한 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렇게 학회 회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학술대회를 위해 좋은 말씀을 주신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 세종학당재단 이해영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성기철 고문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현식 이사장님과 육효창, 장향실 고문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한국언어문화의 상호소통”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주제입니다.

‘DX’라고하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학습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자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가 던져준 과제와 나아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새로운 가을의 시작을 맞이하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힘써주신 학회 이사님들과 임원진, 그리고 지난 2년간 학회를 위해 희생해준 학회 간사와 편집위원회 간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11대 회장
임형재

환영사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6차 추계학술대회가 가을 정취가 물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게 됨을 축하합니다.

하늘 드높고 구름 은은히 흐르며 코스모스와 국화 향기 맑은 이 좋은 계절에 대자연의 손짓을 뒤로하고 오직 한국어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회는 2001년 창립하고 2년 전 코로나 상황에서도 창립 20주년 기념자료집을 내고 곳곳이 흔들리지 않으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한국언어문화의 상호소통’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외국어교육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앞으로 성큼 다가온 국제 다문화 시대에 미래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한 다짐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첫째, 우리는 학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학회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원래 2001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IAKLE)의 자매학회로 출범하면서 학회 이름 그대로 한국어 문화교육을 특화하기로 하였기에 그동안 한국어 문화교육을 독보적으로 발전시켜온 점을 자부심으로 삼고, 문화 교류와 이민 및 이주가 폭증하는 다문화의 시대에 앞으로 이 분야의 심화 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방법론의 혁신을 추구하면서 언어문화교육의 학문 융합에 힘써야겠습니다.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접맥, 융합시키는 학문으로서 언어문화교육의 융합과 새로운 창조를 도모하면서, 문명을 선도하는 주요 언어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와 교육을 융합하는 일은 끝없는 연합과 융합의 과제라는 점에서 한국어 문화교육이 한류 문화의 시대에 배움의 즐거움을 더하는 교육으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옛것을 존중하고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즉 인공지능(AI)과 Chat GPT의 시대에 첨단 언어교육을 위한 첨단 기기와 교수학습법을 수용 발전시키면서도 전통 언어문화교육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전통과 첨단 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외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한국어 문화교육의 현장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힘써 항상 현장 교육에 기반한 발전을 도모하여야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전반기에 국제학술회의를 외국 현지에서 개최해 온 전통을 살려 앞으로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드넓은 외국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어교육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인 디지털 문해력(문식성, literacy)과 소통 문제는 인간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소외와 격차를 극복하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종합 능력을 길러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능력이고 인간의 권리라는 점에서 옥현진 교수님의 기조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일깨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와서 사는 250만 외국인 중에는 삶의 현장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외국인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어 능력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외국인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GPT, 메타버스, 통번역 등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의 향연이 펼쳐지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융합 발전시키는 중요한 성찰과 성장의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학술대회를 준비해 온 임형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옥고를 준비하신 발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회의 미래 지평을 메타 버스와 통번역의 영역까지 한 차원 새롭게 넓혀 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임원단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환영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민현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6차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누리소통망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는 시대에,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보를 분별하는 디지털 문해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소통 방식에 기반을 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한국언어문화의 상호소통’이라는 주제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원과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를 논하는 발표들이 흥미롭습니다. 한국어교육에서 챗 지피티(ChatGPT)가 화두가 되는 시대에 요구되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대응하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비롯한 국어원의 말뭉치들은 언어 자원의 토대이며, 한국어를 둘러싼 학문 분야와 산업의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를 개최하여 인공 지능의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있어서, 단체나 기관은 물론 개인이 개발한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의 한국어 처리 성능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어와 한국어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원의 다양한 사업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도 알차게 무르익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장소원

축 사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입니다.

제36차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들께서는 2001년 창립 이후 한국 언어문화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연구 결과를 해외 연구자들과 공유함에 힘써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한국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이러한 역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한국언어문화의 상호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 또한 한국언어문화의 발전과 관계자들의 지식 교류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오늘날 무엇을 하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교육의 장이 열리고 있으니,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발표할 정도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공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적절한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도 여러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도 작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가상공간에서 한국어로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하룻길에는 360도 가상현실(VR)로 생생하게 펼쳐지는 짬짬방과 만화카페에서 한국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장에는 저희 재단이 시행하는 최근 신기술 융합 교육의 일면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즐기기도 하시면서, 고견도 또한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류와 한국어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